

[ 사회 ]



29일 오전 광주 남구 양림동에서 열린 '정율성로(路) 개통식'에서 정율성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진짜 생가터는 동구 불로동 163번지'라며 행사 진행을 저지, 남구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남구청 제공>

# '정율성로' 개통식 충돌

## 광주 남구·기념사업회, 생가터 공방 몸싸움

중국 3대 음악가로 널리 알려진 정율성(鄭律成·1914~1976) 선생의 생가 터를 놓고 대립해온 정율성기념사업회와 광주 남구가 '정율성로' 개통식에서 또 다시 충돌, 갈등 재연이 우려된다.

29일 오전 광주 남구 양림동에 조성된 정율성 생가 앞 도로에서는 황일봉 남구청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율성로' 개통식이 열렸다.

개통식에 앞서 참가자들은 정율성 선생의 생가에 새봄겨 부어진 주소인 '정율성로 16-7번지'가 적힌 표지판을 부착하기 위해 생가 입구에 도착했고, 이때 정율성기념사업회 관계자 10여명이 "남구가 주장하는 정율성 생가 터는 거짓이고, 진짜 생가 터는 동구 불로동 163번지"라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을 끌어내려는 남구 직원들과 정율성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몸싸움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30여분만에 소동은 일단락됐다.

남구는 이날 행사를 방해한 정율성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정율성기념사업회 정찬구 상임 부회장도 "남구 측이 선생의 생가 터에 대해 증거로 제시한 선생의 친필 이력서 등은 모두 가짜"라며 "남구청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정율성 선생의 생가 터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정율성 선생의 생가 터는 중국에 있는 선생의 부인 정설송 여사 등 유족에게

받은 친필 이력서 등 자료와 이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며 "정율성 선생이 중국에서 워낙 유명해대다,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이해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남구는 이날 정율성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빠져나간 뒤 정율성 생가 터에 표지판을 부착하고, '정율성 거리전시장' 앞에서 테이프 컷팅식과 전시관 헌관 제막식을 가졌다.

남구는 그동안 유족 증언과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 2004년부터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5월 정율성 선생과 관련한 각종 사진자료와 영상자료를 한데 모아 '정율성 거리전시장'을 조성하는 등 기념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변호사회 회장 노영대씨 선출

광주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노영대(55) 변호사가 선출됐다.

<인터뷰 16면>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9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변호사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50대 회장에 노영대 변호사를, 부회장에 안재국(53) 변호사와 강행욱(48) 변호사를 각각 선출했다. 신임 감사는 차현국(47) 변호사

와 정규권(44) 변호사가 맡게됐다. 노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노 회장은 한평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사시 23회로 법조계에 발을 내디딘 뒤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목포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2년 개업했으며, 2005년부터 법무법인 '법가(法家)'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행정·외무고시 경쟁률 46대 1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4일 2009년도 행정·외무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 347명 모집에 1만6천 91명이 지원해 평균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행정·외무고시의 평균 경쟁률인 46.2대 1(339명 모집, 1만5천 646명 지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1차 필기시험은 2월21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연합뉴스

## 광주시 장애인재활전문병원 수탁기관 조선대병원 최종 선정

조선대병원이 광주시 장애인재활전문병원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29일 조선대병원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공모한 북구 본촌동 옛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들어설 장애인재활전문병원 수탁기관으로 조선대병원이 최종 선정됐다.

광주시가 사업비 270억원을 투입해 150병상 규모로 건립되는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은 오는 2011년 문을 연다.

조선대병원은 178억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포함해 총 222억원을 재할 전문병원 운영에 투자하는 한편, 180명의 전문 의료 인력으로 진료과 8개와 전문재활센터 4개를 개설하는 등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의료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이 병원은 호남권 거주 장애인 28만여명에 대해 장애인 특성과 생애주기에 적절한 진단과 다양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원 합격자 224명 발표

#### 광주시교육청

특수학교 교사 13명 등이다.

수석합격은 유치원 교사 부문에서 전남대졸(2008년) 이세은씨가, 초등교사는 광주교대 졸업예정자 허유진씨, 특수학교 교사는 조선대졸(2004년) 김재덕씨가 각각 차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3분  
해질 17시 59분

달돋이 09시 20분  
달질 21시 50분

### 겨울비

흐리고 비가 온 뒤 오후부터 점차 개겠다.

도시	날씨	기온
광주	흐리고 비	5/9°C
목포	흐리고 비	5/10°C
여수	흐리고 비	5/8°C
완도	흐리고 비	6/9°C
구례	흐리고 비	4/9°C
해남	흐리고 비	6/9°C
장흥	흐리고 비	6/9°C
고흥	흐리고 비	7/9°C
순천	흐리고 비	7/10°C
영광	흐리고 비	5/8°C
진도	흐리고 비	6/9°C
전주	흐리고 비	5/9°C
남원	흐리고 비	4/9°C
옥산도	흐리고 비	6/9°C

비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북동	1.0~2.0m	목포 04:24	09:39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북동	1.5~2.5m	16:47	22:04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북동	1.5~3.0m	여수 11:23	05:01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2.0~4.0m	23:44	17:32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1(토)	2/1(일)	2(월)	3(화)	4(수)	5(목)
날씨						
최저/최고	2/11	-2/10	-1/9	2/8	0/9	2/10

## 광주 도심에 '강통 빌딩'

### 북구 우산동 서방사거리 10층짜리 3월이면 입주자들 모두 빠져나가

광주 도심의 10층짜리 빌딩이 '강통 빌딩'으로 전략할 처지가 됐다.

29일 광주시 북구청과 유한회사 조양물산 등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지난 1991년 광주 북구 우산동 서방사거리에 건립한 D 빌딩이 오는 3월 입주자가 모두 빠져나가면서 텅 비게 된다는 것이다.

이 빌딩은 지상 10층 지하 2층에 각 층이 600㎡(180평)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고 한층 각 층에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사무실로 가득 차면서 점심때면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로 주변이 북적거렸을 정도다.

하지만 도심 공동화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결국 지은 지 18년 만에 입주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빌딩으로 전락하게 됐다.

주변에 있던 광주시청이 서구 상무지구로 옮기자 입주율이 서서히 낮아지더니 지난해 10월과 12월 5개 층을 사용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가 떠났고 이후 빈 사무실은 메워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오는 3월에는 8~9층에 입주한 광주지방교정청마저 첨단 신단에 마련된 정부합동청사로 이

전할 예정이어서 이 빌딩은 '관리사무소' 격인 조양물산 사무실만 10층에 덩그러니 남게 된다.

광주·전남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랫동안 부동산 운영을 했지만 10층짜리 빌딩이 통째로 비게 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조양물산은 지난해 말부터 빌딩 외벽에 "가격과 임대"를 광고하는 대형 펼침막을 두르고 3.3㎡당 250만원까지 받던 보증금을 100~120만원으로 낮춰지만 별 효과가 없다.

회사 관계자는 "문의전화는 종종 걸려 오는데 입주 의사를 밝히는 곳이 없어 답답하긴 하다"며 "주변 식당가도 물상이어서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식당을 이용할 정도"라고 털어놴다.

/김지율기자 dok2000@

### 채무자 폭행·협박 최고 5년 형 처벌

을 8월부터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나 그 가족들을 폭행·협박하거나 야간에 방문해 공포심을 유발하면 최고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반복적인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빚 독촉도 금지된다.

법무부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공포안인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달 초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그 가족, 친지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력에 사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채무자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과 글·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 등에게 전달해 공포심을 유발하고 사생활 등을 해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 광주시, 초등학교 주변 등 53곳 '스쿨존' 정비

광주시는 올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보육시설 53곳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정비한다.

시는 국비와 시비 38억4천만원을 투입해 ▲안내표지판 설치 ▲보도구역 진입도로 적색 컬러 아스콘 포장 ▲보도·차도 구분 및 무단횡단 방지

용 안전펜스 설치 ▲차량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24억원을 들여 165개 초등학교 등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치를 완료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 무안 - 상해(방콕) 직항!!!

\* 공항 주차장 무료이용  
\* 국내 최대의 연륙도를 주는 **광주MBC문화탐방** 상합니다 www.kmbc.or.kr

**"가족의 마지막 선물과 치원이 있습니다"**

###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 **중국 동력항공** **광주MBC문화탐방**

▶ **중국 동력항공** **광주MBC문화탐방**

### 무안 - 상해(방콕) 직항!

▶ **중국 동력항공** **광주MBC문화탐방**

▶ **중국 동력항공** **광주MBC문화탐방**

문의 062-226-6070